

공현 후 2주일(연중 2주일) 감사성찬례

집전/설교: 최용준 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스테반 지휘/선창: 박어거스틴 반주: 당그레고리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 성공회 산본교회

개회예식

†입당성가 254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8쪽 집 전 자
†죄의고백 9쪽 다 함 께
†영광송 12쪽(C곡)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집 전 자
전능하신 하느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과 성사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고 경배하게 하소서.

1독서 이사 49:-17 말 은 이
성 시 40편 다 함 께



- 1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시고
○ 내 부르짖는 소리 들어주셨다.
 - 2 죽음의 구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진흙 수렁에서 나를 꺼내주시어
○ 바위 위에 내 발을 세워주시고
내 걸음 힘차게 해주셨-다.
 - 3 내 입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와
○ 우리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 4 나의 하느님, 나는 당신의 |법-을
○ 내 마음 속에 간직하고 기뻐합니다.
 - 5 당신의 정의를 내 마음 속에 숨겨 두지 |않-고
○ 당신의 진실하심과 구원을 |알렸습니-다.
 - 6 주여, 당신의 그 인자하심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 그 진실한 사랑으로, 이 몸을 언제나 |지켜 |주소시-어.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 |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 |멘

2독서 1고린 1:1-9 말 은 이
†복음환호송 집 전 자
†복음서 요한 1:29-42 집 전 자

설교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19쪽 다 함 께
†봉헌성가 344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0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22쪽(C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5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6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27쪽(C곡) 다 함 께
성체성가 423장 성 가 대
†영성체후기도 29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소식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29쪽 집 전 자
†파송성가 360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1월 18일)	다음 주일(1월 25일)
1독서	박순호	이선자
2독서	정연창	홍종분
대 도	정국진	정연창
다음주일 전례독서	이사 9:1-4 시편 27 1고린 1:10-18 마태 4:12-23	
성 가	259 395 361 403	
복 사	이동우 이서현	보혈조력 정요셉
다음주간 교회청소	김준우 조장은 류한신	

(1997-2026 / 교회설립 29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6년 1월 18일 공현 후 2주일(연중 2주일) · 가해 · 녹색

제30-3호

"와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례자 요한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라 증언합니다. 이 한마디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가장 간결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종종 ‘벌을 받아야 할 잘못’으로 이해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죄는 하느님과의 친교가 깨어진 상태, 곧 관계의 단절을 뜻합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벌의 면제가 아니라, 손상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하느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해주셨습니다”(1고린 1:9)라고 말합니다. 이 친교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체험합니다. 감사성찬례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물으며 “와서 보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구원 안으로 초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초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머문 안드레아는 그 체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 시몬에게 달려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외치며 그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하느님의 어린양’을 만난 기쁨은 자연스레 다른 이를 향한 초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아처럼 “와서 보라”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찬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는 이제 다른 이들을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의 친교 속에서 살아가는 삶 - 그것이 곧 하느님의 어린양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이며, 그 구원 안에서 시작되는 하느님 나라의 삶입니다.

교구장 김장환(엘리아)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욱(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올리야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間は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치와 화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성공회를 주축으로 천주교회, 정교회, 개신교회가 함께 참여하며 예수님의 일치 기도를 바탕으로 분열된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인 것을 강조하며, 세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間は 1908년 미국 성공회 폴 왓슨(Paul Watson) 신부님이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교회 일치 대화를 거쳐서, 1964년에 천주교회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기도 주간을 장려하였고, 1968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신앙과 직제위원회와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 공동 기도 자료를 발행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공회가 1968년 처음으로 일치 기도회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치 기도 주間は 폴 왓슨 신부님의 제안대로, 1월 18일 성 베드로 사도 성인 축일과 28일 성 바울로 사도의 회심 축일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지키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기도 안에서 되새기며 실천합니다.

- ◆ **교회의 사명:**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밝히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역할을 실천합니다.
- ◆ **사회적 책임:**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 교회가 하나 되어 봉사합니다.
- ◆ **희망과 확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치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 형태의 전쟁과 침략, 분열과 폭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주간 외울 말씀 24

야훼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시편 37편 3절)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공현 후 절기(연중절기)

사순절 첫날(2/18)전까지를 공현 후 절기(연중절기)로 지킵니다. 전례색: 녹색, 전례곡: C곡, 기원송가: 영광송(C곡)입니다.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월 18일 ~ 25일)

갈라진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을 기억하여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주님의 봉헌 축일

2월 2일의 주님의 봉헌 축일을 2월 1일로 옮겨서 지킵니다. 이날 봉헌 서약서를 봉헌하고, 한 해 동안 사용할 양초를 축복하는 예식을 합니다.

■ 알림

◆ 성직자 인사 발령 (이임: 2월 1일, 부임: 2월 8일)

최용준 배우로 신부 → 수원교회 관할사제
조준행 프란시스 신부 → 정년퇴임(발령 2. 28일)
김문영 키프리안 신부(현 부천교회 관할사제)

◆ 어린이 예배 (매월 둘째, 셋째 주일)

오늘(18일) 오전 11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 관할사제 송별회 안내

오늘(18일) 성가대 연습 후에 송별회가 있습니다.

◆ 조준행 프란시스 신부님 설교

다음 주일(1월 25일) 11시 성찬례에는 조프란시스 신부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 2026년도 십일조(월정헌금) 봉헌 서약

성전 입구에 비치된 봉헌 서약서를 기도 가운데 작성하여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아서 2월 1일 주님의 봉헌 축일에 함께 봉헌합니다.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담은 마음입니다.

◆ 남부교무구 성직자 워크숍

1월 20일(화) ~ 21일(수) / 강릉교회

■ 교우 소식

◆ 생일 축하합니다

조장은(20일) 임예지(23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1,300,000원
김준우/조장은 류한신/이민녀 백남진/박선희 이진봉/김영란

■ **주일헌금** 194,000원
권순호 박선희 박종례 백옥경 유정훈 이원주 이윤식 최순덕 최용욱 최용준신부 허예영 황선숙

■ **주일학교** 유아윤 1,000원

■ **감사헌금** 580,000원
김은하, 윤병로/최자연, 임광호/최숙진(신년) 이건상 정수(생일) 차준섭신부/김승숙(범사)

■ **특별헌금** 40,000원
최미혜, 최성문(나눔의집)

< 성공회 산본교회 봉헌 안내 >

신한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 주간 전례독서 (1월 19일 ~ 24일 / 공현 후 2주간)

	독서	복음
19일(월)	사무상 15:16-23	마르 2:18-22
20일(화)	사무상 16:1-13	마르 2:23-28
21일(수)	사무상 17:32-33,37,40-51	마르 3:1-6
22일(목)	사무상 18:6-9, 19:1-7	마르 3:7-12
23일(금)	사무상 24:2-23상	마르 3:13-19
24일(토)	사무하1:1-4,11-12,17-19,23-27	마르 3:20-21

※ 기도해 주세요 ※

◆ 우리교회를 위하여

-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 환대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 전도대상자를 위하여

- 주님을 만날 때까지 품고 기도합니다.

◆ 환우 교우를 위하여

권영분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김형기 박종례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최숙진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임인택